

세상을 사는 이유 (상)

이권상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다. 혹자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행복한 뒷구리를 한다고 비아냥거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너무나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1993년 가을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불교 교양대학이 있으니 한 번 나가볼 의향이 없느냐는 권유가 있기까지 난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교회에 몇 번 다녀 본 적은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단순히 친구따라 놀러 간 것 이외의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외가에서는 불교와 인연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인연이 되어 부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양대학에 나가려면 불교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강경> <천수경> 등 기초서적을 읽으며 1년을 끝다가 1995년 중앙불교대학(대전시 동구 자양동 소재)에 입학하여 그 다음해에 졸업했다. 이렇게 부처님과 맺은 인연은 다시 한 번 인생을 열심히 살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내 자신과의 약속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나는 지체장애인이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의 결과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고 일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가운뎃손가락을 잃어 오른손이 작아졌고, 왼손은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와서 일을 할 때 장난은 한잔하야 한다고 해서 막걸리를 반잔 마셨고 트림을 할 때마다 이상한 역겨움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고

하고 있는 것도 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이다. 1994년 4월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회복되었다.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알고 있다.

비록 가족하고는 직장관계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분명 내 생활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으며 매사 일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이 있게 해준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세월은 참

생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술을 먹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사춘기 시절을 맞아 이성에 눈뜨기 시작했을 때 지체장애는 한마디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수도 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고, 수없이 많은 밤을 그런 고민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게도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콜중독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다.

장애의 고통 벗어나려 술 입에 대기 시작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며 가족과 멀어져

점점 업무 의욕 떨어지고 삶을 비판하게 돼

으로 참담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까지, 아니 벼랑에서 천 길만길 남퍼러지로 떨어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물론 그 원인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알콜중독! 어쩌면 이 단어가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단어, 아니면 숙명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 내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술을 처음으로 먹어본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아버지 기일날이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장남은 한잔하야 한다고 해서 막걸리를 반잔 마셨고 트림을 할 때마다 이상한 역겨움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고

허약한 체질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지도 못했으며 조금만 먹어도 토하기 일쑤였다. 토하면서 괴로움과 외로움을 토해내고도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남들보다 더한 가난 그리고 수줍음이 많던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묻어두며 생활했다. 그리고 술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위로 방법이 되었다.

29세 된 해 중매로 어렵사리 결혼을 했다. 사실 장애인인 결혼을,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자마자 당사자인 내가 겪었던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이다.



그림 · 문병성

중매결혼이기에 정들며 사는 것이 과제였고, 서로를 아는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 둘은 노력했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고 열핏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살았다. 사글세 150만원짜리 방을 얻어 생활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일면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 인생은 계속 이어졌다. 27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술로 인하여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자식들과의 정도 멀어지고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에만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서서히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1994년 봄부터였다. 막중한 업무도 업무지만 상사와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술로 인하여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그때서야 협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잘

못했으면 죽음이 왔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오열을 했다. 당시 내 나이 마흔 셋이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가족들의 냉담함이였다. 하루하루를 술로 사는 남편과 아버지를 어떤 가족이 곁에 바꿀 수 있었는가. 하지만 그런 자책 보다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한 소주보다 순한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술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협업약은 협업약대로 먹으면서 술을 마셨

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직장업무가 잘 될 리 만무였다. 점점 업무의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급기야 사표를 쓸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체 장애인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도 쉽지도 않았다. 너무도 비참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체체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할인 봉사 기간이 2006년 말로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에 공급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계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통통도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재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끊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구입금액: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우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